



아시아리뷰

제16권 제2호(통권 37호), 2026

서평



중국문화대혁명의 평등주의 정치에 대한 알랭 바디우적 재해석

알레산드로 루소 지음, 피경훈 옮김, 『문화대혁명의 혁명적 문화』(산지니, 2026)를 읽고

백승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문화대혁명을 통해 대중정치라는 질문 던지기

2026년은 중국문화대혁명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국제적으로 이를 재논의할 많은 학술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분위기는 잠잠하고 특히 중국 내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지난 40주년과 50주년 시기 관찰된 중요한 대응과 매우 대조된다(백승욱, 2026). 이처럼 분위기가 침잠한 이유는 무엇보다 “문화대혁명의 철저 부정”을 내건 중국의 개혁개방의 방향성이 시진핑 시기 들어 재확인 및 강화되고 이를 특히 당 주도 질서 체계 수립이라는 목표에 종속시키는 흐름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거기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시대와 혁명적 낭만주의 사조들의 쇠퇴가 맞물렸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알레산드로 루소의 『문화대혁명의 혁명적 문화』는 조금의 시차를 두고 바로 이 문혁 60주년 한국 사회에 얼굴을 내비쳤는데, 문화대혁명의 논의가 낯설지만은 않은 한국 사회에 이 책은 문혁 60주년 토론을 다시 전개해 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연구자로서 루소의 입장은 독특한데, 단순한 마오주의자는 아니지만 마르크스-공산주의적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함의를 재독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중국 현지 조사를 다니던 시절, 중국에서 만날 수 있었던 생존한 ‘비판적 조반파’ 출신의 학자들로부터 이

러한 정치적 입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따금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지닌 서방 학자로는 이 책에서도 언급된 조엘 안드레아스(존스홉킨스대학교)가 있었으며, 여기에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 바로 이탈리아 출신으로 프랑스 파리8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알렉산드로 루소이다. 그들도 비슷한 정치적 관심을 가진 한국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중국 동료로부터 들었을지 모르겠다.

루소의 책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출발하는데, 저자의 표현을 가져오면, “평등주의적 정치의 지적 지평을 재건하기 위한 가능성의 자원으로 ‘문화대혁명’을 연구”(11쪽)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구도는 “주체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된 ‘문화대혁명’과 혁명가들이 자신의 의도를 선언하고 실천했던 정치에 관한 문화적 프레임으로 이해된 혁명적 문화 사이의 관계”(13쪽)이자 모순의 분석이며, 3장에 등장할 구도를 미리 가져오자면 “해체” 대 “다원화”의 대립구도를 통해 문화대혁명을 보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루소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문화대혁명을 바라보는 그의 견해는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견지를 상당히 차용하고 있다. 여전히 ‘견결한 마오주의자’라 할 수 있는 바디우의 문화대혁명관은 ‘당 없는 정치’의 시퀀스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루소가 “다원화”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강조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흥미로운 만큼 한계를 노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앙문혁 소조장 천보다를 분석한 필자의 작업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다(백승욱, 2012: 5장).

책은 4부로 구성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루소 자신이 서문에서 분명히 안내해 주고 있다. ① 1965년의 연극적이었던 ‘프롤로그’로서 『해서 파관』¹ 논쟁 분석, ② 마오쩌둥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 ③ 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대중적 국면, ④ 문화대혁명 10년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마오주의자들’의 미완의 시도라는 네 가지 사안이다(12쪽). ‘대중운동’으로서 문화대혁명에 주목하고 문화대혁명을 ‘대동란의 10년’이 아닌 대중운동의 2년 혹은 3년에

¹ 우한이 쓴 희곡 『해서 파관』은 명나라의 청렴한 관료 해서가 파면당한 사건을 다루는데, 이 일이 1959년 마오를 비판하다가 실각한 평티화이를 지칭하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면(백승욱, 2007; 2012) 이러한 루소의 분석 구도가 자신에게 흥미로운 토론의 장을 부여해 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루소가 제시했듯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 부분이 균형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이 거기에 있는데, 책은 압도적으로 제1부에서 흥미롭고 새로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논리적 귀결이나 논지의 연장 같은 느낌을 준다. 2, 3, 4부 또한 1부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가면서 기존의 연구들과 대결해 가는 성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한 권에 모든 성과를 담을 수는 없으니,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기고 4부의 구성을 따라가면서 루소의 논점을 확인해 보자.

II. 연극적 프로로그에서 확인되는 농민의 정치적 역할이라는 질문

이 책이 돋보이는 부분은 제1부 『해서파관』 논쟁을 분석한 부분이다. 문화대혁명을 다룬 많은 소개서들이 1965년 11월 상하이의 야오원위안(姚文元)이 베이징 부시장이자 학자인 우한(吳晗)이 쓴 『해서(海瑞: 하이루이) 파관(罷官)』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 것을 문화대혁명의 출발점으로 삼고 간략한 소개를 덧붙이고, 이로부터 이듬해 「5·16 통지」에 등장하는 “당내 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권파”라는 논점을 곧바로 이어 붙인 다음, 이를 마오쩌둥이 주도한 당내 권력투쟁의 산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한다. 논쟁은 야오원위안의 우한 비판이라는 문예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59년 대약진 운동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루산 회의에서 벌어진 마오쩌둥과 펑더화이의 대립과 펑더화이의 “파관”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당 전체에 ‘노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해서파관』 논쟁의 구체적 맥락을 정작 세밀하게 분석해 보여주는 경우는 드문데, 루소는 이 책에서 이 논쟁의 다면적 맥락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복원해 보여주고, 이것이 왜 당내의 핵심 논쟁이 되고 당을 분열시키면서 무대에 대중을 등장시키게 되는지를 흥미롭게 분석해주고 있다.

이 논쟁을 복원하면서 루소가 보여주는 구도는 ① 야오원위안 공격의 복합적 함의, ② 마오쩌둥의 개입을 더 넓은 당관료와 지식인 사회의 맥락에서 해석, ③ 우한의 의도와 위상, 이 세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의도-음모-결과라는 단순한 구도 분석과는 상이한 맥락에서 제시하는 이런 복합구도 분석은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시행하는 당이 어떤 모순과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중정치 주체의 형성이라는 질문이 왜 제기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중요하다.

논쟁의 촉발자인 야오원위안에서 시작해보자. 루소는 야오원위안 공격의 함의를 연극적 차원, 역사적 차원, 정치적 차원 셋으로 나눈다. 뒤의 두 가지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논의에 담겼던 것이라 한다면 루소가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첫 번째 차원이고 거기로부터 정치적 차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준다. ‘역사적 차원’이란 시대 재현의 문제인데, 역사적 분석을 고려할 때 지주와 농민의 계급적 대립이 존재하던 당시에 대해서는 농민의 대변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농민을 통치대상으로 가볍게 본 관리에 불과했는지 ‘실증적’인 쟁점이 있다. 해서와 달리 더 농민 편에 선 관리도 있을 수 있고 해서보다 악독한 관리들도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셋째 ‘정치적 차원’은 이 문예논쟁이 곧바로 정치적 대논쟁으로 이어진 맥락인데 회고적으로 1957년 루산회의 시점에서 문제였던 ‘인민공사’ 문제에 대해 “역사를 바로잡고” “토지를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가를 현재의 정치적 무대의 쟁점으로 불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 논쟁이 격화된 진짜 배경은 야오원위안이 제기한 ‘연극적 차원’ 때문인데, 우한의 극을 비판하면서 농민은 극에서 어떻게 정치적 주체일 수 있고 주체여야 하는가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를 ‘계급투쟁’ 중심으로 보는가 ‘생산력 발전’ 중심으로 보는가의 대립을 반영하는데, 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농민은 ‘선진적 계급’일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으며 ‘대신’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연극적 차원은 역사적·정치적 차원을 다시 불러내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연극적 차원은 기실 당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활약하던 혁명사 무대, 혁명사 연극 ‘수행성’의 지속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쟁점은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라살을 비판한 ‘지킬엔 논쟁’도 연상시킨다.)

그래서 루소는 이 논쟁의 무대를 그다음 행위자인 마오쩌둥으로 옮겨가면서

이를 중국 사회주의가 직면한 좀 더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으로 연계시킬 수 있게 된다. 쟁점은 평등화이와 마오 사이에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루소는 문화대혁명 초기 국면에서 마오쩌둥이 고립된 소수파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인민전쟁 속에서 중국 농민의 정치적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조직해냈던 바로 그 정당이 이제 농민 정치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장애물로 등장한 것은 극복할 수 없는 난국으로 판명되기에 이르렀다”(56쪽)는 데서 찾는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농민의 새로운 정치적 존재성은 가능한가” 그리고 “인민전쟁”이 거기에 답을 주는가라는 질문(66쪽)은 사실 건국 이후 “15년간 잠재되어 있던 쟁점을 드러낸 것”이었다(71쪽). 소련식의 스탈리노프적 동원도 대약진 노선으로부터의 대대적 퇴각도 답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 논쟁이 당 핵심 부분에 한정된 논쟁이 아니라 역사학계와 지식인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던 것이고, 거기서도 딱히 결론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농민반란의 긍정성에 대해 쟈보잔의 ‘양보론’이나 치변위의 ‘적극적 역할론’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상대를 “형이상학 유물론”으로 비판하고 자신을 “역사 변증법”의 옹호자로 내세우는 것으로도 쉽게 답이 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논쟁의 당사자인 우한은 누구였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로 나아가 보자면, 우리는 우한이 단순히 희생당한 순진한 지식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당노선에 의도적으로 반발했던 관료도 아니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우한을 지지하건 비판하건 모두가 우한을 희생시켜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는 단지 기득권 관료층 대 혁명세력의 대립 같은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루소는 이후 그가 사용할 ‘해체’ 대 ‘다원화’라는 대립 구도를 미리 활용하고 있는데, 우한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질서의 이름으로 옹호한 평전 주도의 베이징 당위원회는 ‘2월 제강(요강)’과 ‘문혁5인소조’를 내세워 당 관료 주도의 문화혁명을 추동했던 것이다. 문화대혁명의 지지와 반대라는 구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이징 당위원회-문혁5인소조-공작조(공작대)의 ‘질서의 문화혁명’이 한쪽에 있고, 2부에서 설명될 마오쩌둥 주도의, 「5·16 통지」의 새로운 주체들이 출현하는 ‘다원화’의 문화혁명이 또 한쪽에 있었던 것이다. 이 독특한 사회주의 정치 동학을 분석해 보여준 것이 루소의 장점이다.

아무래도 루소의 분석은 ‘노선논쟁’의 구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의 훨씬 복잡한 구도나 쟁점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쟁점, 특히 2부 이후와 연결고리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검토해 보자. 첫째, 당-대중(농민)의 관계는 1959년의 루산회의만의 쟁점이 아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첸리쑤이 ‘1957년학’이라 부른 문제, 즉 1957년 ‘백가쟁명 백화제방’이 급격하게 ‘반우파투쟁’으로 전환된 역사적 문제가 있다(첸리쑤, 2012). 이것이 문화대혁명 시기 대중조직 대립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 이 쟁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해서파관 논쟁의 쟁점은 그에 앞서 4청운동이나 사회주의 교육운동과도 차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농민으로부터 노동자로의 정치적 주체의 변동이 문화대혁명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고려가 빠졌다. 루소는 해서파관을 농민주체의 역사적 역할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정작 제3부에서 쟁점은 문화대혁명의 정치에서 노동자계급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부상을 다루고 있다. 그 사이 간극에 바로 ‘공작조’ 문제가 있는데, 토지개혁 시기 농민들을 혁명주체로서 ‘역사(극)의 무대’에 불러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매개였던 공작조가 왜 문혁 시기에는 반동적 조직으로 전락했는지는 분석 없이 넘어설 문제는 아니다. 셋째, ‘파리코문’이라는 쟁점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농민과 연관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문화대혁명과 그에 앞선 정치의 구획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넷째로, 마오쩌둥과 펑더화이의 루산회의 대립은 대약진과 농민의 역할을 둘러싸고 전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는 혁명시기 이래 지속되어 온 당-군 관계의 모순이 있고 그것이 특히 ‘조선 지원 전쟁(抗美援朝)’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던 배경이 있다.

III. 이념-노선 대립 분석만으로 부족한 전체 구도의 이해

제1부의 풍부한 분석과 대비해 제2부 이후는 분석의 범위가 축소되어 아쉽다. 제1부를 통해 확인한 당과 대중의 위상을 둘러싼 사회주의 시기 노선 논쟁의 배경을 한층 깊이 이해하기 위해 루소가 제2부에서 취한 전략은 이 시기 마오쩌둥의 핵심 발언을 통해 사회주의 지도자로서 그가 안고 있던 고민을 드러

내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위해 그가 주로 활용한 문헌이 『마오쩌둥 사상만세』라는 비공식 출간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1970~80년대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관점에서 문화대혁명을 수용하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되었던 출판물로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에도 복사되어 배포되기도 했다. 루소는 여기에 수록된 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이를 『건국 이후 마오쩌둥 문고』라는 공식 출판물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여기서 루소가 보여주고자 하는 마오쩌둥의 핵심 질문은 혁명의 패배가 임박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 두 가지이다(161쪽).

이런 논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첫째로 “마오쩌둥은 자신이 간절히 찾던 해답 대신, 결국 교착 상태를 맞이했다. 당이 재평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이다”(180쪽)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마오쩌둥은 「5·16 통지」를 통해 「2월 제강」이 막은 언론을 다시 뚫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오는 「2월 제강」의 중대한 오류, 즉 “문화분야의 정치투쟁을 순전히 학문적 논쟁으로 돌려버린 것”을 바로 잡고자 했으며, 「5·16 통지」에 이르는 마오의 생각은 두 가지 긴급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① 특정 권위자들을 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② 중국에서 정치적 목소리에 문을 무제한 열어야 한다는 것(206쪽)이었다. 그러나 이런 “20세기 사회주의 정치 문화 속에서 당의 통제를 벗어난 무제한의 정치적 목소리들의 장려”(222쪽)는 미지의 난점에 세계를 개방하는 것이기도 했다. 루소의 지적을 정리해 보자면 최소한 세 가지가 문제였는데, 첫째는 “진리의 계급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214쪽), 둘째 “파괴없이 건설 없다(不破不立)”는 구호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낳을지, 셋째, 군대를 마오 숭배의 기지이자 안정된 질서의 공간으로 만들어낸 린바오의 시도가 지닌 문제였다.

그런데 1부와 대비되는 2부의 이런 깔끔한 정리는 어딘가 불편하다. 이 구도는 평전의 「2월 제강」 대 마오쩌둥의 「5·16 통지」의 ‘노선대립’으로 문화대혁명 발동을 해석해 내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그 구도를 보여주려면 1부의 훨씬 복잡한 구도를 여기에서도 그려냈어야 한다고 보인다. 1부의 분석이 우한 개인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혁명 이후 구도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성공적 시도를 보였다면, 2부는 거기서 다시 물러나 평전으로 대표되는 당관료 한 명과 마오라는

다른 노선 지도자의 이념대립처럼 그려진다. 그렇지만 1부를 정리하면서 말했듯, ‘두 가지 문화혁명의 구상’이 있고 그것이 공작조라는 매개를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다면 2부의 구조는 좀더 복잡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5·16 통지」가 당시 즉각적으로 대중에게 공포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 공표는 1주년을 맞아 1년 후에 알려졌다라는 점이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8월 8일 라디오를 통해 공포된 「문혁 16조」, 그리고 그에 앞서 8월 초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이 발표한 「나의 대자보: ‘사령부를 포격하라’」였다.

루소의 분석은 문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념들의 대립 구도와 현실 정치에서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다기한 해석과 실천 사이에서 전개되는 복잡성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듯 보인다.

이어지는 3부는 이런 「2월 제강」과 「5·16 통지」의 대립이 계급 정치에 대한 정치적 시험으로 어떻게 관철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중요한 무대는 1966년 후반 홍위병의 등장, 그리고 1967~68년에 걸친 노동자계급의 등장이다. 이 두 무대는 문화대혁명 해석에서 중요한 논점인데, 학생조직 대 노동자조직, 파리코문 대 생산관계의 개혁, 베이징 대 상하이라는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탈권, 상하이 코문과 혁명위원회, 홍위병 해산과 공선대(工宣隊: 노동자마오쩌둥사상선전대)-군선대의 ‘3결합 구도’의 등장 등 아직도 논쟁이 많은 쟁점을 담는다. 루소의 분석은 홍위병 등장 국면과 노동계급 등장 국면 둘로 나뉜다. 먼저 홍위병 등장 국면을 보자.

루소는 홍위병 등장의 배경으로 ‘불안감에 의한 동원’(243쪽)이나 ‘정치적 괴로움’(244쪽)을 들고 있다. 1966~68년까지 홍위병 활동 시기를 성장과 쇠퇴의 두 국면으로 나눈 루소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해체’와 ‘다원화’의 변증법을 분석에 동원하고 있다. 그 구도는 이미 「서문」에서 “혁명가들이 자신의 의도를 선언하고 실천했던 정치에 관한 문화적 프레임” 대 “주체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 문화대혁명”이라는 구도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13), 이는 권력장악 대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라는 구도로도 반복되고, 베버의 권력론 대 바디우의 권력론의

대립으로도 해석된다(216-252쪽).

루소 자신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홍위병이라는 주체의 형성이 보여준 “다원화”의 핵심은 “당-국가의 사전 승인 없이, 정치와 국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치 기구인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고 방어하는 것”(256쪽)이며, 홍위병의 등장과 쇠락의 원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주관적 에너지(다원화 과정)와 정부 내부의 관료적 경쟁 역학(해체의 과정) 사이의 분리 혹은 비분리의 정도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다(255쪽).

이런 맥락에서 혈통론도 계급 기반의 정치를 왜곡하는 요인들로 간략히 소개하고 ‘탈권’의 시도를 다원화와 직접 연결하려고 하기도 한다. 앞서 바디우적 해석이라고 말한 것이 이런 대립적 구도의 설명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바디우의 문혁론을 비판하면서 말했듯 이런 구도는 ‘당 이후’의 ‘사건-충실성-진리’라는 맥락의 매우 일반적인 ‘시시포스적 시도’의 반복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한 구도 이해를 위해 3부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홍위병의 내부 대립과 분화일 것이다. 적어도 네 가지 쟁점이 구체적 역사를 검토하는데 중요한데, ① 혈통론 논쟁에 대해서도 『해서 파관』만큼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것이고, ② 1967년 2월을 계기로 조반파가 군개입 문제를 둘러싸고 급진조반파와 온건조반파로 나뉘며 이것이 이후 분파화 및 무장대립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 ③ “50일 대 17년 논쟁”에서 확인되듯 ‘1957년 학’의 쟁점이 되돌아온다는 것, ④ 문혁의 지역적 차이와 학생조반파와 노동자조반파 대립의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고찰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이런 과제를 일단 밀어두고 루소는 1967~68년 국면 ‘노동자계급’의 본격 등장 국면으로 넘어간다. 문혁에서 노동자의 등장과 생산의 장소라는 쟁점은 중요하지만 덜 다루어진 쟁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리쉴이 집중 분석한 상하이 노동자 조반의 검토 등이 중요하다(리쉴, 2026). 루소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은 소략한 편이다.

루소는 네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안팅사건’을 계기로 상하이 노동자 조직이 ‘적위대’와 ‘공총사’로 분화되어 공총사 중심의 조반운동이 진행된 것,

둘째, 혁명 조반파 연합으로 형성된 ‘상하이 코문(상하이 인민공사)’이 파리코문의 현신으로 수립되었다가 곧바로 ‘혁명위원회’로 변경된 일, 셋째, 1968년 홍위병 해산 및 하방에 수반한 공선대(그리고 군선대)의 등장과 “노동자계급이 일체 지도” 구호의 부상, 마지막 네 번째로 ‘7·21선언’과 더불어 등장한 ‘7·21 대학’ 즉 ‘노동자 대학’ 형성과 교육혁명의 시도이다.

각각이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복잡한 역사적 사건인데, 루소의 대응은 이 모두를 ‘노동자계급의 지도’라는 주장으로 묶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알랭 바디우적 정치를 내건 루소의 입장은 여기에 이르면 상당히 모호해진다. ‘당 이후의 정치’를 다시 ‘노동자 계급의 지도’와 결합하려는 시도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통해 앞서 1, 2, 3부의 난점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 해석으로 가는 과정에서 ① 상하이 공총사는 ‘당 개입’ 없이 아래로부터 매우 자율적으로 이뤄졌고 ② 상하이 코문의 혁명위원회로의 교체는 오히려 난점을 해결하는 것이었고 ③ 공선대의 개입은 역량이 부족하고 낭만적인 학생지도부를 대체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해석이 덧붙는다. 혁명위원회는 “‘탈권’이 가진 신비로운 아우라가 뿜어내는 파괴적 바이러스에 대한 일종의 ‘백신’ 역할을 했다”(340쪽)는 평가에서 그런 판단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루소의 주관적 의도가 다소 많이 포함되어있고, 문혁 40주년 이후 특히 중국 내부의 중요한 연구 결과들의 분석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 ① 상하이 노동자 조반파 구성과 활동에서 장춘차오로 대표되는 중앙문혁소조 한 분파의 개입은 매우 중요했고 이는 일관되게 지속되었으며 또 중앙문혁소조의 분열로 귀결되었다. ② 혁명위원회로의 전환에서 나타난 핵심적 변화는 군의 개입이었고, 이러한 군 개입의 일반화는 조반파 내부의 분열, 일부 지역에서의 군에 의한 폭력적 진압과 이에 대한 저항, 린뱌오식 문혁 수행 등의 문제를 낳는다. ③ 공선대 개입과 “노동자 계급에 의한 일체의 지도”는 ‘공장 없는 파리코문’의 문제를 ‘파리코문 없는 공장’의 문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루소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동자 계급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다원화 시기의 종료”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루소는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고, 이를 다시 다원화와 ‘해체’의 대립이라는 일반적인 구도로 환원하려 한다 (403쪽).

4부는 마오 최후의 시기 ‘문화대혁명 계승’을 둘러싼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의 질문이 지속되고 계승되기를 원했고 마오쩌둥이 발탁한 ‘후임 총리’ 덩샤오핑에게도 이를 기대했지만 덩샤오핑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갔다는 평가가 제시된다.

마오쩌둥의 문혁 계승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쟁점이 제시된다. 첫째로 린바오 사건이 보여준 바는 마오쩌둥이 의도한 정치공간의 계승이 아니었다는 것, 둘째, ‘해체’의 관점에서 비림비공 운동에서 확인되는 유가 대신 법가를 복원하려는 시도, 셋째, ‘부르주아 독재’라는 논점의 제기이다.

마오쩌둥이 이 시기 문혁의 계승으로 내세운 것은 학습운동이고, 노동자대학과 노동자 이론대오 실험이 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432쪽).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시기는 이미 다원화가 종료되고 있던 시점인데, ‘학습운동’과 다원화는 병행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럼 왜 문화대혁명 이전의 ‘학습운동’인 사회주의 교육운동 방식의 연장은 불가능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학습운동을 시행하는 대표적 매개 조직이던 공작조가 왜 문혁 초기에 그렇게 큰 문제의 장소가 되었는지 등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은 이런 마오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질서와 대립되는 질서의 구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덩샤오핑은 대신 “공장 내에서의 마오주의적 실험의 억압, 노동자의 완전한 상품과 그리고 노동 계급과 그들의 전위대인 공산당과의 역사적 연계에 관한 이 데올로기적 참조라는 관방적 담론의 유지”(477쪽)를 수립했다. 그리하여 “문화대혁명의 비판적 재평가를 위한 대중운동의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혁명 정치에 관한 마오쩌둥의 관점과 그것에 관한 당 최고구 지도부의 관점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냈다”(474쪽)고 평가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제2부 이후의 분석이 주로 ‘노선 대립’과 ‘노동자 주체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분석의 배경은 매우 소략하게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9차 당대회의 쟁점, 1968~69년 급진 조반파에 대한 대대적 탄압, 1978년 베이징의 봄의 일시적 유화 태도와 그 후 다시 ‘삼종인’ 숙정 과정 등의 복잡한 당의 정치는 구도에서 많이 배제되었다. 후기 조반파가 제시한 ‘사회주의적 민주’라는 쟁점도 시야에 들어오기 어렵다.

IV. 계속될 논쟁을 위해

여러 아쉬움이 남기는긴 하지만, 루소의 새로운 시도는 문화대혁명이 사회주의 정치의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서 어디서 좌절했고 그럼에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지 계속 묻는다. 루소의 책과 더불어, 그리고 문화대혁명이라는 소거되기 어려운 복잡한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난점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다. 첫째, 사회주의의 역사적 시도는 과연 무엇이었고 어떤 의미를 남겼는가. 둘째, 당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당 없는 정치는 필요하고 가능한 것인가. 셋째, 현대 정치에서 주체와 구조의 간극은 어떻게 메워질 수 있는가(백승욱, 2012). 넷째, ‘인민전쟁’이라는 질문은 마오주의적 버전을 거치며 왜 ‘제어되지 않는 폭력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낳는가(노벨, 2024).

투고일: 2026년 7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6년 7월 31일

참고문헌

- 노벨, 줄리아. 심규호 옮김. 2024. 『마오주의: 전 세계를 휩쓴 역사』. 파주: 유월서가.
- 백승욱. 2007. 『문화대혁명: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파주: 살림.
- _____. 2012. 『중국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중앙문혁소조장 천보다와 조반의 시대』. 서울: 그린비.
- _____. 2026. 「문화대혁명 60주년에 되돌아보는 문혁연구의 성과와 과제」. 2026년 현대 중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26. 5. 15. 인천대.
- 백승욱 편. 2007. 『중국노동자의 기억의 정치』. 서울: 폴리테이아.
- 리선. 손승희 옮김. 2026. 『조반의 시대: 상하이 문혁 운동사』 1~4. 서울: 세창출판사.
- 첸리췌. 김정행 외 옮김. 2012. 『망각을 거부하라: 1957년학의 연구 기록』. 서울: 그린비.